

신진서 9단, 코로나19 피해복구 성금 1000만원



바둑 메이저 세계대회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진서(20) 9단이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싶다는 성금 1000만원을 내었다.

한국기원은 중국바둑협회에 신진서의 뜻을 전하고 관계 기관에 송금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진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바둑 공부에 매진하는 연구생들에게 써 달라라 장학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2012년 1회 영재입단대회를 발판으로 입단한 신진서는 지난 12일 막을 내린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에서 박정환(27) 9단을 중합전적 2-0으로 꺾고 입단 이후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창호 9단이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사용해 달라라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창호의 성금은 중국바둑협회 소속 우한 출신 리저 6단의 소개로 우한대학교 육발전기금회에 13일 전달됐다. 중국바둑협회 관계자는 중국 프로그래머들도 같은 기금회로 성금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NH농협은행 광주본부, 화훼 농가 돕기 '꽃 나눠주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최영·왼쪽 세번째)는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눠주기 행사'를 벌이고 장미 1만 송이·꽃바구니 600개를 광주지역 영업점에 공급한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국문화예술위-국립중앙도서관 정보 접근성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왼쪽)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기록의 효율적인 보존과 국민 정보 접근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학생 7명 전국 우수학생 선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세무경영학과가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표창하는 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광주대는 세무경영학과 4학년 육도환·김대성·김민철·나현인·양어진씨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강태빈·홍민아씨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대 제공>

“긴장의 11일, 코로나 환자 완치로 보상받았죠”

광주 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 조선대병원 음압병동 간호사들

25명, 레벨 D 방호복 착용·가족과 일시 단절하며 밀착 간호 업무 미루지 않고 솔선수범...환자 퇴원 날 친가족처럼 기뻐

광주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조선대병원 75병동 음압병실. 광주 지역 최초로 코로나19에서 완치된 22번 환자가 11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조선대병원 75병동 수간호사 A씨는 17일 광주일보와 만나 “환자분이 퇴원하며 ‘고맙다’고 해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지역사회 돌아가서도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뷰 사진, 인적사항은 게재하지 않는다.

22번 환자가 완치된 배경에는 1일 3교대로 환자를 돌봤던 75병동 간호사들이 있었다.

75병동 간호사 25명 중 단 한 명도 이번 간호 업무를 꺼리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22번 환자가 입원하던 날 “오히려 서로 자신이 들어가자고 나섰다”며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

을 때”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조선대병원 음압병실은 전염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해 고안된 병실이다. 복도부터 병실, 화장실을 지날 때마다 각각 2.5파스칼씩 기압이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바깥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고, 안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병실 안에는 6~12회 교환된 공기를 새로 넣어준다.

22번 환자는 입원 초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가족(16·18번 환자)이 모두 자가격리 상태라 면회도 할 수 없고, 휴대전화로 간단히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격리시설인 만큼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식사도 정해진 식단을 간호사를 통해 건네 받아야만 먹을 수 있었다.

“개인적인 불안함도 있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완쾌될 때까지 걱정 않고 치료 받으시도록 간호사들과 ‘따뜻하게 해 드리자’고 입을 모았는데, 차츰 간호사와 유대감이 생겨 다행이었어요.”

음압병실을 출입하는 간호사는 ‘레벨 D’ 수준의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A씨는 “방호복을 입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혈관에 주사 놓기도 어려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한 번 병실에 들어가면 1~2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함께 병실에 출입하는 방사선과 직원, 보안요원, 기계실 설비 요원, 보건소 직원 등 8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병실에 들어가 마지막까지 환자를 확인하고 나와야 하므로 가장 오랫동안 방호복을 입는 셈이다.

땀이 뻘뻘 흐르고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답답하지만 75병동 간호사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미리 방호복을 입고 벗는 훈련을 해 온 덕분이다.

“방호복을 벗다 실수하면 병원이 문을 수 있어. 훈련을 겸해 지난해 10월 방호복을 올바르게 입고 벗는 법을 주제로 병원 경진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

고 자신감 있게 간호를 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보호복을 입고, 후시나 복도 등 열린 공간이 오염되지 않을까 조심했다. 최대한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을 줄여야 하는 간호사 입장과 ‘간호사도 병실 출입을 꺼리는 것 같다’는 환자의 민감한 반응이 부딪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퇴근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후시나 후는 마음에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22번 환자는 말끔히 완치돼 퇴원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17일까지 조선대병원 음압병실을 찾은 환자는 19명(음성 포함). 수많은 의심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지금 75병동 간호사들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 수간호사로서 간호사들을 어떻게 이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늘 긴장하고,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올 거라 믿습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교육청 ‘미세먼지 대응 특별 합동점검’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샘플링 120개교 대상

광주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3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주관 미세먼지 대응 자체점검단과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2020년 미세먼지 대응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 신학기 개학 전 미세먼지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특별 합동점검반은 미세먼지

지 대응 모니터링단(Air-Keeper) 15명과 자체점검단 9명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광주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된 120개교를 대상으로 불시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자체점검표를 중심으로 학교에 자율점검 이행을 촉구하고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휘국(사진 왼쪽)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광주 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건강보호를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했다.

광주신보 최근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와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신보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부담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특별보증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보 측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건의 받은 ▲소상공인 대상 보증상품 정보 전자우편 서비스 ▲소상공인단체 방문홍보 및 출장상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책반 운영이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이재석 지스트 교수, 미국 유명 화학회지 편집자문위원 선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신소재공학부 이재석 교수가 고분자 합성 및 종합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화학회지인 매크로몰레큘즈(Macromolecules) 편집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매크로몰레큘즈는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고분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다.

이 교수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 중 특히 고분자 합성분야 연구에 많은 공헌을 했다. 30여 년간 고분자분야를 중심으로



241편의 논문과 28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9권의 저서 및 활발한 강연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연구개발에도 기여했다.

한편 이 교수는 1994년부터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산문화재단, 신인 문인 창작 지원금 5월29일까지 접수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제)은 역량 있는 신진 문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대산창작기금 창작 지원금 신청을 오는 5월29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아직 등단하지 않았거나 등단 10년 이하 문인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5개 부문에서 수혜자를 선정

해 1000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준다.

소정 신청서, 작품소개서와 분야별 미발표 작품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daesan.or.kr) 참조.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원례회(회장 이태웅)=18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일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

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사량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량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량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 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 일정 기간 위탁할 인양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